

## 풀무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맞손...친환경 식품 패키지 개발 나선다



풀무원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친환경 식품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

풀무원기술원(원장 이상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과 식품산업의 탄소 중립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녹색 포장 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식품 패키지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충북 오송 바이오폴리스 소재 풀무원기술원에서 열렸다. 이상윤 풀무원기술원 원장과 김상구 식품안전실 실장,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심진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 센터장 등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혁신적인 식품 패키징 개발과 친환경 패키징 R&D, 지속가능한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식품 패키징 및 온라인 물류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발굴 및 과제 수행 △신소재,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제품 개발 △식품 친환경 패키징 기술 및 제품 개발 △식품 패키징 기술, 정보, 트렌드, 네트워크 공유 △패키징 분야 기자재 및 시설물의 공동 활용 △기타 상호 기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함께 이행하게 된다.

풀무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친환경 패키지 개발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에 최적화된 친환경 혁신 패키징 소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은 2020년 경영목표인 Global New DP5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풀무원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00% 재활용 우수 포장재 적용 완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윤 풀무원기술원 원장은 “양사가 함께 친환경 혁신 패키지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식품 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풀무원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LOHAS)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지속 개발하여 식품산업의 탄소 중립 및 ESG 경영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